

용역계약 및 개발비 지급에 대한 문의

Q 한국, 중국, 독일, 스웨덴에서 개발 공동용역을 수행 후 한국의 고객사가 개발비를 중국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중국은 양산제품을 한국의 고객사에 납품을 하며, 이에 따라 계약서는 한국의 고객사와 중국과 맺을 예정이고, 한국이 개발 용역의 대부분을 수행하며 이에 대한 개발비는 중국으로 부터 지급받으려 합니다.

한국 고객사가 중국에 개발비를 지급할 시 원천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며, 대부분의 개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고객사와 중국이 계약을 맺고 중국에 지급 후 한국으로 그 개발비가 재 지급되는 경우 부가세 또는 그 이외의 Tax Risk 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1.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중국)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외국법인(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내에서의 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인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대해서는 특정요건을 충족(고정사업장, 183일 초과 등)하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하게 되는데 다음의 한중조세조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중 조세조약

제14조【독립적 인적 용역】

1. 일방계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계약국에서만 과세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타방계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다.

가. 동 거주자가 타방계약국안에 그의 활동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 경우 동 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타방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나. 동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 동안 타방계약국안에 체재하는 경우(이 경우 동 타방계약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분에 한하여 동 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은 물론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학,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므로 비거주자(중국)에게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며, 추후 중국으로부터 귀사가 개발비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단위과세사업자 중 1곳을 별도 분리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 Q** 현재 단위과세사업자(종된 사업장 4곳)로 신고되어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1. 단위과세사업자 종된 사업장 1곳을 별도 분리해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요?
[단위과세사업자(3곳-종된 사업장)과 별도 분리 과세사업자(1곳-지점) 가능 여부]
 2. 1번이 불가능 한 경우 사업장 전체를 단위과세 종된사업장(4곳)을 포기하고 별도 지점을 4곳으로 관리 해야하는지요?
 3. 만약 2번으로 진행 된다면 지점별 세무신고(부가세&법인세 및 결산)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요?
- A**
1.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종된사업자 1곳을 별도 분리할 수 없으며,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사업장별로 분리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신청을 하여 모든 종된사업장이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모든 종된 사업장에서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는 법인단위이므로 동일법인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자산문의

- Q** 공장동 외부에 펜스와 연결된 자바라를 철거 후 그 자리에 펜스를 설치하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요?
건축법의 대수선에는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수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따로 신고 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는 않아도 되나요?
- A**
- 펜스를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공장)에 귀속시킬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선비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한해 자본적지출로 처리합니다.
- 기존의 공장으로 반영시키려는 경우 해당 펜스설치로 인해 공장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경제적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